

보다 먼저 작동할 리는 없다.

연소生成物과 煤煙의 濃度가 약하면 扇部의 探知器는 暫時間 動作하지 않을 수도 있다.

探知器가 動作할 경우, 空氣供給扇은 自動的으로 遮斷되어 外界空氣桶은 閉鎖된다. 同時에 모든 冷房「시스템」은 空氣排氣裝置로 轉換되고 계속 空氣排氣扇은 自動的으로 動作하게 된다.

消防管理人は 「빌딩」 管理室에서 모든 扇部裝置를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調節할 수 있다.

高層建物에서는 「엘리베이터」의 運用 역시 火災時 主要考慮事項이다.

「엘리베이터」를 消防活動의 可能的한 단계의 手段으로 使用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건물에는 大型貨物用 「엘리베이터」가 各層마다 있으며 이는 消

防管理室에서 統制하고 있다.

일단 消防管理室의 統制「키」가 作動되면 이 「엘리베이터」는 일결 다른 信號에 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건물 安全「센터」에서 火災警報信號를 받으면 安全管理人は 「엘리베이터」의 統制運用을 위해 消防員들을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한다.

이때 모든 「엘리베이터」는 自動的으로 建物底部의 「엘리베이터·터미널」로 回收된다.

「터미널」에 火災가 發生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다른 層으로 옮겨지며, 옮겨진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動作될 수 없게 된다.

「터미널」에 回收된 「엘리베이터」는 消防員들의 消火活動의 必要한 用途로 쓰이게 된다.

「엘리베이터」가 消防員들의 消火活動에 使用될때, 「엘리베이터」의

門은 内部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는 限 外部「버튼」으로는 열리지 않게 되었으므로 消防員들이 「엘리베이터」를 떠나 消防活動을 하는 동안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高層建物火災時 放送施設 또한 주요 關心事가 되고 있다.

이 건물에는 全建物에 대한 放送施設이 잘 되어 있다.

消防室職員은 建物安全센터에서 1個의 持定한 層, 또는 몇개의 層아니면 建物全體內에 火災에 따른 指示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消防員은 「로비」에서 保安電話를 통하여 安全「센터」와 通話할 수 있으며 이 電話에 依해 받은 指示事項을 安全管理人は 放送施設을 利用, 필요한 建物部分에 傳達하게 된다.

被雇用人들로 構成된 自治消防隊

隨想

望樓의 鄉愁

消防署의 望樓가 제구실을 못 한지는 이미 오래 됐다. 날로 늘어 가는 高層「빌딩」숲 속에 가려 火災監視塔의 機能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것이다.

서울 市內에 있는 望樓는 33個 派出所에 총 21個所. 이중 가장 높은 望樓가 31.8m의 西大門區 佛光洞 消防官 派出所 望樓이며 그 다음이 31m의 中區 太平路 所在 中部消防官 派出所, 반면 가장 낮은 것은 鷲梁津 消防官 派

出所의 9m 높이이다.

가장 높은 佛光派出所의 높이는 대충 8층 이상의 建物에 해당하는 높이로서 望樓의 높이로서는 꽤나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서울 市內에는 이같은 높이에 해당하는 8층 이상의 建물이 즐잡아 1백50여처를 훨씬 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望樓가 갖고 있는 視界의 限界는 가히 짐작할만 하다.

지난 60년대만 해도 望樓의 視

界는 70~80%를 「커버」하여 火災發見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60年代 후반부터 望樓의 視界가 점차 축소되어 금년에 들어와서는 불과 20% 內外에 머무르고 있다.

한 예로 光化門 內거리 中部消防官派出所 望樓의 경우, 正面에는 「코리아나 호텔」, 옆面에는 「뉴 서울호텔」, 뒷面에는 毗隣 「호텔」과 光化門電話局에 가려, 視界의 範圍란 불과 中央廳 쪽을 바라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龍山消防署 梨太院派出所의 경우, 뒷面에는 「럭키호텔」, 옆面에는 태평극장, 「코리아」여관과 언덕이 가로막혀 전혀